산에 들에 피어나는 한국의 꽃들

식물학자 김태정씨, 「韓國野生花圖鑑」 펴내

우리나라에는 봄부터 가을까지 온갖 꽃들이 지천으로 피어나 아름다움을 다툰다. 시골의 길가나 밭둑, 언덕과 들, 풀숲과 바위틈, 어느 곳이건 그럴 만한 자리엔 반드시 꽃들이 피어나 화려한 眼福을 누리게 한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이 풀리면 맨먼저 피는 것은 수선화와 유채화·동백꽃이다. 이어 4~5월에 접어들면 개나리·진달래를 비롯해 민들레·할미꽃·조팝나무·제비꽃·철쭉이 만개하고, 여름부터 가을까지는 접시꽃·패랭이꽃·분꽃·채송화·맨드라미·코스모스 따위가 산과 들을 수놓는다.

이렇게 좁은 땅덩어리에 비해 많은 종류의 야생화들이 자생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북위 43도에서 35도에 이르는 온대성 기후대에 위치하고 있는데다가 국토가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기 때문이다.

야생화 708종 컬러사진 수록

최근 재야 식물학자인 金泰正박사(47·한국야생화연구소장)가 우리나라 산야에 자생하는 야생화들을 컬러사진으로 집대성한 「韓國野生花圖鑑」(46배판·556면·敎學社)을 내놓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원래 생태사진 작가였던 김박사가 야생화에 관심을 갖기는 72년부터. 산행을 하던 중 야생식물이 훼손되고 자연이 병들어가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야생식물 연구에 뜻을 세우게 됐다. 이때부터 그는 서해와 남해에 흩어져 있는 크고작은 무인도에서 휴전선 지대 민통선 안에 이르기까지 전국 구석구석을 샅샅이 누비며 수백종의 희귀한 식물들을 찾아냈고, 곱고 신비한 꽃들을 카메라에 담았다.

그동안 그가 직접 확인하고 사진으로 촬영한 식물은 3천여종. 이 책에는 그중 꽃색이 뚜렷하고 개성이 독특한 136科 708종의 야생화를 가려뽑아 1,200여 커트의 컬러사진으로 담았다. 꽃사진은 만개했을 때의 아름다움과 그 꽃의 분류학적인 특징을 생생하게 표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각 야생화를 잉글러 시스템 분류방식에 따라 배열하고 그 꽃의 科名·學名과 지방마다 다른 異名, 藥名, 꽃말 등과 함께 그 식물의 분포지·개화기·결실기·용도 등 저자가 직접 조사기록한 해설, 그리고 꽃에 얽힌 전설·유래까지를 곁들임으로써 식물학도들의 연구자료로서는 물론 어린이와 어른들의 자연공부에도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게 꾸며졌다.

휴전선 일대에서 발견된 희귀종들

우리 국토는 특히 등뼈 구실을 하는 해발 1500m 내외의 산맥이 북에서 남으로 흐르고 있어, 북쪽의 식물이 이 산맥을 따라 남하하는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북쪽에서만 자생하던 식물들이 어느새 남한지역 깊숙한 곳에서도 자생하는 것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이 책에는 휴전선 일대에서 처음 발견된 희귀식물들이 상당수 수록되어 있다. 강원도 양구군 대암산 해발 1308m 지점 정상 부근에서 발견된 비로용담, 구름패랭이꽃, 가는동자꽃, 세잎종덩굴, 매발톱, 끈끈이주걱, 왕노루오줌, 산오이풀, 산꼬리풀 등은 남쪽에서는 보기 드문 식물들이다. 이밖에도 철원 지방에서 찾아낸 버들잎금불초, 다래나무, 제비난, 낙지다리, 도솔산의 각시원추리, 향로봉의 산조팝나무, 노랑털제비꽃, 흰민들레, 펀치볼 지역의 두메부추, 선씀바귀, 휴전선 동부지역 건봉산의 도깨비 부채, 참비비추, 판문점 부근의 애기부들, 흑삼릉, 서해안 대청도의 갯방풍, 백령도의 갯채송화 등도 모두 희귀종이다.

특히 한라산·설악산 등지에 많았던 솜다리(에델바이스)와 제주도의 풍란, 충청 이북지방 산지의 냇가 바위틈에 많이 자라던 돌단풍 등은 마구잡이로 채취당해 멸종위기에 놓여 있는 꽃들이다.

이들 한국의 야생화들은 쓰임새도 다양해서 거의 모두가 민간약재로 쓰이거나 아니면 식용·사료용·퇴비용·가내세공용 등으로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등산객들도 이런 야생화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 산행이 한결 즐거울 것 같다.

김박사는 이번에 담지 못한 것을 앞으로 2집·3집으로 펴낼 계획인데, 특히 북한지방의 야생식물을 탐사할 수 있는 날이 어서 왔으면 하는 것이 필생의 바람이다.

內實 다지는 한국출판연구소

자료실 확충, 연구계획 활발히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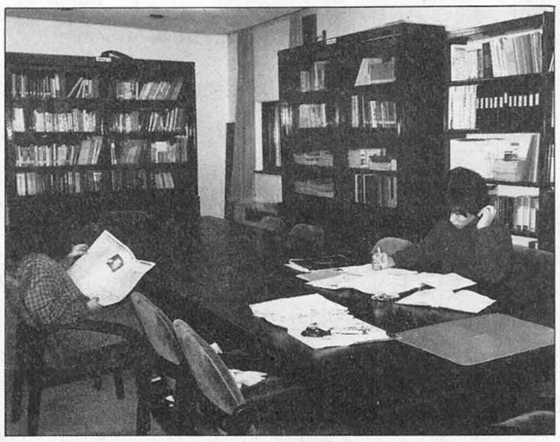
"출판의 학문적 실무적 연구를 통해 출판산업의 발전과 출판문화의 향상을 도모한다"는 취지 아래 지난 86년 문을 연 재단법인 한국출판연구소(이사장 金炳翼)가 89년을 제2의 '도약의 해'로 삼고 양적 질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다.

특히 그동안 빈약했던 각종 출판관계 소장자료를 최근 크게 확충하고 해외의 최신출판정보를 손쉽게 입수할 수 있는 컴퓨터 정보망을 설치하는 등 자료실의 기능을 크게 보완, 출판학 연구자들과 출판계 종사자들의 활발한 이용을 기다리고 있다. 소장자료로는 출판관계 뿐 아니라 독서·인쇄·서점·서지 정보에 관한 국내외 전문도서 6백여권과 국내외 전문지 114종을 구비하고 있으며, 정보망을 통해서는 영어권 및 세계각국의 최신 서지정보를 한 눈에 살펴 볼 수 있다.

"자료실의 서비스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장도서 및 잡지의 완벽한 색인을 마련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전담 사서를 두는 방안도 고려중"이라고 김희락사무국장은 말한다.

출판학의 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해 착수한 「출판사전」 편찬과 한국출판의 史的 정리사업을 계속하는 한편 출판학 커리큘럼연구, 대학생 독서실태 조사연구, 도서할부판매 연구를 새로이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 또한 회보를 발행해, 그간 입수됐거나 계속 수집되는 국내외 출판정보자료를 출판계 및 관련기관에 제공할 계획도 준비중에 있다.

"연구소가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선 재원확보가 시급하다. 현재 조성돼 있는 3억원의 기금을 10억원 정도로 늘려서, 몇명의 연구소연서도 연구원 한명 없이 사무국 직원들만으로 운영되는 약점을 시정해 연구 프로젝트가 현재와 같이 외부용역이 아닌 연구소 자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차원으로 나가야 한다"고 김국장은 강조한다. 그러나 연구소에 대한 일반의 인식은 아직 크게 미흡해, 지난해말 방송광고공사에 신청한 5억원의 공익자금지원이 부결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출판연구의 '센터'로 발돋움하는 한국출판연구소 자료실.

그런가 하면 연구소에 대한 출판계 자체의 소극적인 관심과 이용자세도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 지적된다. 홍보부족과 높은 사용료 때문이라고는 하나 지난해 컴퓨터망을 이용한 출판사가 3개사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출판계의 소극성을 대변한다. 따라서 출판연구소가 명실상부한 한국출판정보센터로 발돋움하기 위해선 출판계 내외의 긴밀한 협동과 관심이 더욱 요구된다.

—오애리 기자